

죽음 교육 모형 탐색*

이윤주(李玟姪)** · 조계화(趙桂花) · 이현지(李炫知)***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인조력 전공자들을 위한 죽음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죽음 교육의 현황, 죽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죽음교육의 내용들을 추출하여 둘째,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3인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유사한 것들끼리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셋째,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의 3개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 128명이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한 '죽음 교육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근거이론적 접근의 개방 코딩 절차에 의해 정리하였다. 넷째, 이렇게 정리된 내용과 두 번째 과정에서 정리된 교육과정 영역들과 합하여 통합·정리하였다. 다섯째, 정리된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모형을 정립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죽음교육은 '인지', '정서', '실천 및 행동'을 주요소로 하며 교육의 각 측면은 전문적 실천'으로 귀결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함께 죽음교육 및 죽음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죽음교육과정, 죽음교육모형, 대인조력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2004-076-E00006)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I. 서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종교들은 그들의 교리에서 하나같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철학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삶과 생명의 의미란 특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막에 위치해 있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히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기가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매일 매스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죽음을 우리는 접한다. 또한 지인들과 친척들의 죽음 소식을 드물지 않게 우리는 접한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지만,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혹은 나 자신의 죽음 등 이렇게 우리 자신과 가까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몹시 낯설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피해지는 주제이다. 그러다보니 막상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상의 죽음에 직면했을 경우 매우 큰 심리적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심각한 부적응의 시기를 오래 갖게 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성찰의 부족은 각 개인이 겪게 되는 죽음에 따른 혼란이나 상처, 슬픔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Lagorio, 1993). 인간의 과거의 삶에서 가능하던, 죽음이 주는 의식(funeral rites)이 주는 교육적 메시지를 현대의 우리들은 갖지 못한다. 죽음을 삶의 마지막 과정이자 완성의 과정으로 여기고 그에 걸맞게 치러지던 장례 의식 기간과 그 동안의 함께 함을 통해 이루어지던 자연스러운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죽음교육을 오늘에 되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와 고통, 부적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겪어나가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러한 조력에 심리적인 돌봄이 포함되어야 하는 교사,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대인조력 직종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 안에서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대인조력 직종의 종사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만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조력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2005). 이들에 대한 죽음 교육이 죽음과 관련된 심리적 조력과 돌봄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을 갖추고 제고하는 것이 되려면, 이들을 위한 죽음 교육과정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와 내용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정범모, 1968)으로서 다른 유기체와는 달리 세대를 넘어가면서 더 발전되고 진보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삶을 더욱 나은 것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죽음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죽음에 대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의 인식과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측면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교육목적) 무엇을(교육내용) 어떤 방법으로(교육방법) 행하는가와 관련된다(이성진,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의 세 측면 중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 즉 죽음 교육 과정에 초점을 둔다. 본고에서는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죽음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응답한, 직업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두 절차를 통해 정리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죽음 교육 모형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와 정리는 이후 본격적으로 죽음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 중요한 지침이자 참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탐색은 잠정적으로 모형을 세워 보는 시안적인 성격의 작업으로, 이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 교육의 모형은 죽음과 관련된 현장에서 사람들을 깊이 만나고 도와야 하는 대인 조력 직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현황과 목적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와 대인조력 전공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죽음교육의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죽음교육의 현황과 목적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죽음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죽음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넷째, 선행연구와 교육수혜자들의 요구를 종합한 죽음교육모형의 주요 영역과 내용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의 질적 연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죽음교육내용에 대한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에서 대인조력 전공으로 판단되는 사범대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부의 3-4학년 학생 97명과 상담전공 대학원생,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31명(총 128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14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3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한 128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전반부는 죽음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살펴 죽음교육의 현황, 목적과 내용을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후반부는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들이 자유기술한 죽음교육설문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한 교육내용과 통합하여 교육 모형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중심을 이룬다. 연구 과정에 따라 부분별로 상이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해당된다.

죽음교육내용의 추출에 사용된 문헌자료는 총 22개로 구성되었다(Becker, 2004; Deeken, 1999, 1992; Dickinson, Sumner, & Frederick, 1992; Durlak, 1994; Grollman, 1990; Kim, 2002; Knott, 1979; Lagorio, 1993; Lester, 1991; Leviton, 1977; Morgan, 1988; Schaefer, D. & Kappleman, 1992, 1992; Wass, 2003; Wass & Neimeyer, 1992; 히구치 가즈히코, 1995; 김대동, 2005; 김옥라, 1994; 안황란, 1999; 이이정, 2004; 정경숙, 1998). 검토한 자료 중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나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제외되었다. 교육 내용 추출 작업은 먼저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것들끼리의 통합작업은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각기 독립적으로 한 다음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이 개방형으로 기술한 설문 자료의 분석 절차는 질적분석방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 접근의 첫 단계 작업인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졸업 후 직업 현장에서 죽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대인 조력을 하기 위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둘째, 근거이론적 접근의 개방 코딩의 첫 작업인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본 연구자와 상담 전공 박사과정 학생 1명이 설문지 내용을 읽고 각자 독립적으로, 교육 내용을 몇 개의 낱말로 구성된 구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 바꾸어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어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개방코딩의 두 번째

작업인 '범주화'는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네 단계는 '합의에 의한 통합', '선행연구와 문헌자료에서 추출한 교육 내용들과 합하여 합의에 의한 재통합', '의미상 관련 있는 교육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하여 명명', '의미상 유사한 범주들끼리 묶어 더 상위의 범주로 명명'으로 구성된다. 각 범주의 이름은 본 연구자에 의해 명명된 다음 간호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죽음 교육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2인을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III. 죽음 교육의 현황과 목적

죽음교육이란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Warren, 1989). 죽음교육은 죽음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Durlak,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을, '죽음과 죽어감,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계획적이고 유목적적인 교육으로서 죽음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 등의 전 영역에서의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발달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죽음 교육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유를 계속해 왔으나 이후 철학적 탐구의 대상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방향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죽음은 철학적 사유의 중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죽음 교육에 대한 선구적 논의는 실존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19세기 실존철학과 실존주의의 등장과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은 삶의 의미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부각시켜 놓았다(김대동, 2005; 이이정, 2004).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는 의미를 내면화하라고 촉구하였는데(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의 죽음과 삶의 연결은 "삶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죽음 교육의 목적을 선구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0세기 중반, Feifel, Kubler-Ross와 같은 선구자들이 죽음에 관한 왕성한 활동을 해 오게 된 이후, 행동과학자, 의사, 인본주의자들의 연구들은 현대의 죽음인식운동(death awareness movement)으로 발전되었다(Pine, 1977). 이러한 발전들이 축적되면서 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죽음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듬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초창기 죽음학과 비교해 보면, 죽음에 대한 교육은 대학생들, 보건 공무원,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 건강분야의 전문가들, 사별 및 애도 상담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삼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전 학기 과정,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점, 전문가를 위한 단기 워크숍 등과 같이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Wass, 2004).

다음으로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대인조력 분야별로 죽음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상담 영역의 죽음 교육은 사별 및 애도 상담이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함에 따라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전문 학회, 병원 혹은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다양한 워크숍, 단기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에서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거나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Wolfe, 2003)는 점이 상담 영역의 죽음 교육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학 및 간호학 분야의 경우, 미국의 거의 모든 의학, 간호학, 약학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에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중 대부분은 기본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었다(Dickinson, Sumner, & Frederick, 1992; Dickinson & Mermann, 1996). 그러나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죽음학 교과목이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50%의 의학교와 간호학교의 경우 죽음교육을 시행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Dickinson & Mermann, 1996). 캐나다와 영국의 간호대학과 의대교수들에 대한 조사(Downe, W & Tamlyn,, 1997) 역시 미국에서의 실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죽음 교육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는 분야는 호스피스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미국 호스피스와 완화간호학회(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는 호스피스와 완화적 치료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의 진단과 치료,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영적 통증의 완화, 윤리적 법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술, HIV/AIDS 환자와 소아과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완화적 접근방법 등을 포함하는 8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1998년 미국의학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20개의 모듈로 구성된 "임종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교육"프로그램(EPEC)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모듈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후반에 덕성여대에서 정규교과로 개설하여 운영되다가 폐지된 이후 1979년 서강대학교와 1990년대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죽음 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1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공개강좌 운영,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회지 발간, 강연집 등 자료 출판, 소집단 비탄 및 애도 상담, 호스피스 교육과 봉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며 죽음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 기관의 조직인 '수선회'는 임종교육이라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죽음 교육은 아

직 발전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죽음 교육이 노인 교육의 일환으로 혹은 호스피스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죽음과 관련하여 다수의 일반인들을 조력하게 될 대인조력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자체가 없다시피 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죽음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주로 제공되는 죽음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문화교육’으로서, ‘죽음은 현실이고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 교육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Feifel, 1977)’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둘째, ‘자살 및 폭력 예방’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과 자살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는 목적이다(Wenckstern & Leenaars, 1993). 셋째 ‘해독제’로서의 목적은 ‘죽음교육이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오락 대중매체의 폭력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King & Hayslip, 2001; Wass, 2003)’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실제 범죄 통계 자료를 이용한 교육,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미화나 지나친 평범화와 같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 죽음교육은 첫째,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 둘째, 자신의 죽음과 유의미 타자의 죽음에 대한 감정 다루기, 셋째, 의학, 장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보 습득, 넷째, 사회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명료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Valerie, 1998). Schonfeld와 Kappleman(1990)은 죽음 교육의 성과로 첫째,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공포의 극복, 둘째, 상황이 발생할 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의 제공, 셋째, 죽음에 관한 사실적 논의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사별에 얽힌 감정을 다룸, 넷째, 궁극적인 물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동들로 하여금 영적인 발달과 문화적인 이해의 기회 및 정신적인 자극과 도전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죽음교육의 초기 단계에는 그 목적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다 인간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목적이 삶의 이해를 확장하여 삶과 죽음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까지 넓어졌다(Warren, 1989). 또 다른 연구(Knott, 1979)에서는 죽음교육의 목적을 첫째, 정보제공(죽음 및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와 임상적 관찰을 통한 지식 포함), 둘째,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혹은 죽음 자체의 의미와 같은 이슈 포함), 셋째, 죽음 관련 대처 행동 증진(스트레스 상황, 죽음과 임종, 비탄, 돌봄의 관계를 둘러싼 요구 등과 함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능력 포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Corr의 연구(1978, 1984, 1992)에서도 세 가지의 죽음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학습자의 개인적 삶을 풍요롭게 함, 둘째, 정보 제공, 셋째, 시민, 전문가, 개인으로서 죽음 관련 역할을 준비시킴이 그것이다.

IV. 선행연구에 제시된 죽음교육 내용

선행연구들에서 죽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 제시한 것을 추출하여 구체성의 정도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내용들은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각 선행연구에서 최소 5개에서 최대 40개의 교육 내용이 추출되어 평균 약 25개 정도였다. 내용들은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23개의 교육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정리된 죽음교육 내용을 인지, 정의, 실천 및 행동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 1>로 제시하였다. 두 영역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은 순서상 더 아래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표 1>에 따르면 인지적 영역에 9, 정의적 영역 5, 실천 및 행동 영역에 9개의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지적 영역의 9개의 교육 내용 중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이 된 모든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인적인 죽음 개념 및 철학 정립' 역시 22개 중 20개의 연구에서 추출되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내용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영역에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죽음 교육 내용

영역	교육 내용	해당연구 편수	합계 (평균)
인 지	죽음의 이해: 생물학, 사회문화, 종교, 철학, 의학, 법률적 이해	22	108 (12.0)
	죽음의 정의와 판정	13	
	세계 각국의 장의 풍습	5	
	죽음 관련 산업/시스템의 이해와 평가	5	
	죽음 관련 이슈들(법률/의학/윤리적 이슈들: 유언 작성과 유족, 신체 기증과 장기이식, 인공적 생명 연장 장치, 소극적/적극적 안락사 등)	14	
	비탄 반응 과정과 극복 과정(비탄의 역동성, 사별 가족의 심리 및 극복과정 이해, 발달단계별 이해)	15	
	개인적인 죽음 개념 및 철학 정립(삶과 죽음의 관계, 죽음과 임종에 대한 태도 정립)	20	
	죽어가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이해	7	
	사후의 삶	7	
정 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정과 수용	11	56 (11.2)
	죽음 불안. 공포 다루기	20	
	삶에 대한 능동적, 긍정적 태도 형성(죽음준비로서의 삶)	9	
	전쟁과 대량학살의 심리학	5	
	개인적 상실 및 사별 경험 정리	11	
실 천 및 행 동	임종자에 대한 돌봄과 조력(의사소통 기술 포함)	11	70 (7.8)
	말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 결정권	8	
	사별과 비탄에 대한 조력과 돌봄	10	
	개인적 상실 및 사별에의 대처	9	
	자살 사고의 이해와 조력 및 상담(자살예방 방법 포함)	10	
	전문인 혹은 인간으로서의 의사와 의료 활동에 대한 이해	5	
	장례의식의 역할과 자신의 장례절차 준비	8	
	보험, 유언 등 사후의 법적, 실제적 대처	4	
	죽음 관련 시장 소비자 교육	5	

서는 '죽음불안 및 공포 다루기'가 역시 20편에서 나타났다. 실천 및 행동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한 교육내용이 11개로 나타난 '임종자에 대한 돌봄과 조력'으로서 9개의 교육내용이 분석 대상 연구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V. 대인조력 전공자들의 죽음교육 요구분석

다음으로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의해 보고된 죽음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을 <표 2>로 제시하였다. 응답자마다 1개에서 5개 정도의 교육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최종 정리 결과 인지적 영역에 10, 정의적 영역 6, 실천 및 행동 영역에 12개의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과 비교할 때 인지, 정의, 실천 및 행동의

<표 2>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들이 제시한 죽음 교육 내용

영역	교육 내용	반응수	합계(평균)
인지	죽음의 정의	13	163 (16.3)
	죽음의 과정, 영향 이해	24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20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18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11	
	죽음에 대한 종교적, 영적 이해	18	
	임종자 심리 이해	20	
	사별자 심리 이해	20	
	삶과 죽음의 관계속에서 삶의 중요성 조명하는 철학	17	
	사후세계	2	
정의	죽음 공포, 불안	3	53 (8.8)
	죽음의 미학	10	
	죽음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적극적 삶)	12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	7	
	죽음의 긍정적 수용	14	
실천 및 행동	영성	7	222 (18.5)
	자신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 준비	9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15	
	임종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	51	
	사별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	47	
	임종자, 사별자들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	24	
	임종자, 가족의 권리	4	
	의료 및 간호, 호스피스	15	
	죽은 이에 대한 예의	2	
	장례시 임종자 주위 사람들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	7	
	죽음 형태별 상장예식과 절차(시신처리와 장례절차)	29	
	사후 대처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	10	
보험, 유언 등 법적 대처 방법	9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개수의 교육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교육내용별로 나타난 응답 수를 영역별로 평균을 산출해 보았을 때, 대인 조력 전공자들의 죽음 교육 요구는 인지적 영역과 실천 및 행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내용당 평균 16명 가량의 응답수가 나타났으며 실천 및 행동 영역에서는 평균 19명 가량의 응답수가 나타난 것에 비해 정의적 영역에서는 평균 9명 정도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학생들의 기술에서 추출한 교육내용은 인지적 영역 10개의 교육 내용 중 '죽음의 과정과 영향 이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응(N=24)이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교육내용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임종자와 사별자의 심리 이해'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교육 요구를 밝혔다(각각 N=20). 정의적 영역에서는 '죽음의 긍정적 수용'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명). 실천 및 행동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수를 기록한 교육내용은 51명으로 나타난 '임종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이었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별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 역시 47명에 의해 지적되어 비교적 높은 교육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I. 죽음 교육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죽음교육내용과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한 죽음 교육내용에 토대를 두어 죽음 교육 모형을 수립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따른 교육내용과 대인 조력 전공 학생들에 따른 교육 내용을 합하여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절차에 따라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으로 제시되었다.

축은 교육 내용 및 목표를 분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지, 정의, 행동의 세 측면을 채택하였다. 각 축 안에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인지적 측면'에는 죽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죽음 이해'와 죽음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환경 이해'의 두 범주가 생성되었다. '정의적 측면'에는 죽음을 둘러싼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정서 작업'과 죽음에 대한 태도 부분을 점검하고 바람직하게 바로잡아가는 '태도 정립'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및 행동 측면'에서는 '임종자 조력', '사별자 조력', '자살 예방'의 세 범주로 교육 내용을 분류하였다.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축 안에서 보다 다음 축과 가까이 있는 범주는 멀리 있는 범주보다 다음 축과 더 많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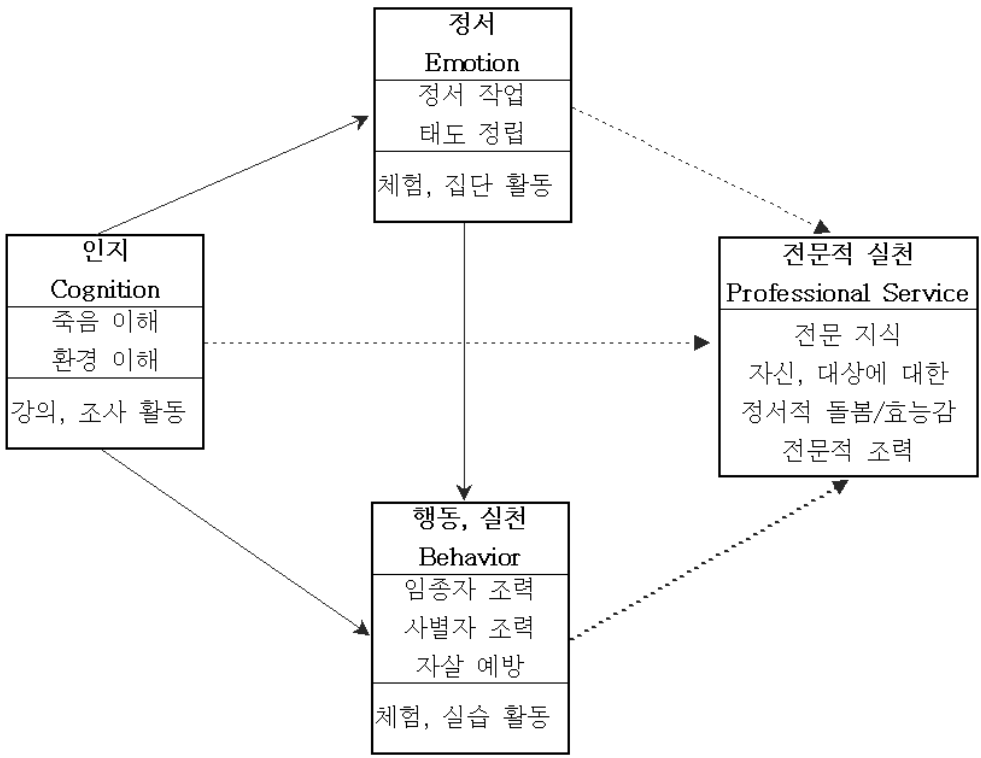
<표 3> 통합된 죽음교육 내용

측	범주	죽음교육 내용	
인지적 측면	죽음의 이해	1. 죽음의 정의와 판정	
		2. 죽음의 생물학, 의학, 사회문화, 철학, 심리학, 종교적 이해	
		3. 다양한 상장 문화	
	환경 이해	4. 관련 이슈들: 유언 작성과 유족, 신체 기증과 장기 이식, 인공적 생명 연장 장치, 소극적·적극적 안락사 등	
		5. 비탄 반응 과정과 극복 과정: 비탄의 역동성, 사별 가족의 심리 및 극복과정 이해, 발달단계별 이해	
		6. 죽어가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이해	
		7. 전쟁과 대량학살의 심리학	
		8. 개인적인 죽음 개념 및 철학 정립	
정의적 측면	태도 정립	9. 자신의 죽음에 대한 수용 10. 죽음과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 정립	
	정서 작업	11. 죽음 불안, 공포 다루기, 극복하기 12. 개인적 상실, 사별 경험 정리	
실천 및 행동 측면	임종자 조력	13. 임종자에 대한 돌봄과 조력 14. 말기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 결정권	
		15. 사별과 비탄에 대한 돌봄과 조력	
	사별자 조력	16. 개인적 상실 및 사별에의 대처 17. 장례의식의 역할과 장례절차 설계 18. 보험, 유언 등 사후 법적, 실제적 대처	
		자살 예방	19. 자살 이해와 예방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서 작업’에 속하는 두 내용 중 두 번째 것인 ‘개인적 상실 경험 정리’는 ‘실천적 측면’과 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를 토대로 대인조력 전공자들을 위한 죽음 교육 모형을 정립하여 [그림 1]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죽음교육 모형은 기본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축을 기본 요소로 한다.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교육 과정이므로 인지적인 측면이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표는 대인조력 전공자들이 전문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데 맞춰지게 되므로 ‘인지’, ‘정서’ 측면은 모두 ‘행동’을 목표점으로 한다.

죽음교육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죽음교육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인 ‘인지’적 측면에 속하는 교육내용들 중 죽음 이해에 해당되는 ‘죽음의 정의와 판정’, ‘죽음의 생물학, 의학, 사회문화, 철학, 심리학, 종교적 이해’, ‘다양한 상장 문화’는 죽음교육의 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의 전반부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이해’ 부분은 ‘인지’적 측면에 속하기는 하나 ‘정서’적 측면의 ‘태도’ 교육과 보다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정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한 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정의’적 측면의 ‘정서 작업’ 범주는 죽음 경험과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표적 직업군인



[그림 1] 대인조력 전공자를 위한 죽음교육 모형

상담자들의 경우 초보 상담자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이 큰 경우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Kirchberg, Neimeyer, & James, 1998)는 점에서 볼 때 대인 조력 전공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태도 정립’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수용’, ‘죽음과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 정립’ 교육은 인지적 측면의 죽음 교육과 연결되면서 정의적 측면과 통합되는 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또한 대인조력 전공자로서 전문적 서비스를 해 나갈 때 중심을 잡아주는 개인적 원칙, 철학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축에 해당되는 ‘실천 및 행동’ 측면의 교육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돌봄과 다각적인 조력 방법을 배우고 말기 환자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의료 및 돌봄의 형태와 절차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는 ‘임종자 조력’ 범주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한 사람들을 의학적, 심리적, 실제적으로 적절히 돕고 돌보는 다각적인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포함하여 각 개인이 겪는 다양한 상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자조 기술을 배우는 ‘사별자 조력’ 범주, 자살 및 자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 예방’ 범주를 포함하는 데 ‘실천 및 행동’ 측면의 교육은 곧바로 졸업 후 전문

적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측면의 교육은 모두 졸업 후의 전문적 실천에 영향을 주게 된다(점선 화살표로 표시).

VII.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모형의 탐색적 정립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죽음교육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 내용들을 근거이론적 접근에 따라 정리하여 죽음교육모형이란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의 제언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겠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 한하여 볼 때 죽음 교육을 모형화한 보기 드문 연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혹은 소개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대상의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 태도, 죽음 불안 등 죽음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교육 모형을 정립하고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모형을 수립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의의가 작지 않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모형 정립을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하면서 직관적이고 개인적 수준에서 죽음 교육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을 제외하고서는 죽음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죽음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과 현장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학원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교육내용과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에 의해 응답된 교육 내용의 정리와 통합 절차가 근거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로 정립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이 상당부분 담보된다 하겠다. 이러한 점 역시 본 연구의 의미로 지적될 수 있겠다.

셋째, 죽음교육은 죽음 자체의 특성상, 또한 교육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다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검토한 선행연구물의 대상영역과 대인조력 전공 영역에서 의학 및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성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죽음 교육 본래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 교육 모형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 역시 본 연구 결과로서 정립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추후 연구에의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죽음 교육의 다학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 및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대인조력 전공 영역을 포괄한 점에서 가치가 남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대인 조력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전공 영역 중 신학 및 종교학 영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문 영역을 다학제적으로 연결하여 죽음교육의 본래적인 성격을 더욱 잘 실현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 모형의 정립에 있어서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검색 과정에서 입수되기 어려웠으며 입수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확립된 지식적 토대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모형을 정립하는 것과 같은 우리 문화가 반영된 죽음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죽음교육 모형 정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이 모형에 기반하여 대인조력 전공의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교수 요목과 수업지도안 및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죽음교육이 실행되고 실행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본 교육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듈식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연구들과 그 결과 축적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죽음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죽음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죽음교육이 다양한 대인조력 전공 영역의 학생들과 실무자 등 보다 다양한 대상들에게 널리 제공되려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전공 혹은 교양 과정으로 개설되거나 재교육 혹은 단기워크숍으로 많은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학점 외 교육과정,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 하나의 단원이나 몇 차시 수업 정도로 편입되어 교육되는 것 등 보다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광범위한 장면에서 제공되려면 모듈화된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풍부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특별히 사별 및 애도 상담을 통해 많은 자료들이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답이 풍성하게 얻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질문들로는 어떤 상황들에 어떤 조력 방법과 기술들이 적당한가? 개인들을 심리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가? 사별과 비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극복과 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사별 및 애도 상담 영역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와 진단 및 평가 도구가 있는가? 등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죽음, 사별과 비탄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와 연구를 통한 지식들이 축적되고 적절히 통합되어 이러한 자료들이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여정은 아직도 멀고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죽음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죽음불안검사(death anxiety scale)인데(Gullinan, 1990; Robbins, 1994; Wong, Reker, & Gessel, 1994) 죽음교육의 내용에서 죽음불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 교육내용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죽음교육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다양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죽음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질적인 분석을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들이 등장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Neimeyer, 1998) 죽음교육의 발전을 위해 질적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표시된 문헌은 선행연구 분석 대상논문임

- 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죽음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19, 1-22.
- 김대동 (2005)*.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옥라편 (1994)*,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가?,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 안황란 (1999)*.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8(1), 44-68.
- 이성진 (2003). *교육심리학서설*. 서울:교육과학사.
- 이이정 (2004)*.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경숙 (1998)*.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집*, 12(1), 267-293, 대구산업정보대학.
- 정동호, 이인석, 김광윤 편 (1987). *죽음의 철학*, 서울: 청람.
- 정범모 (1968).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 히구치 가즈히코 (1995)*, 이원호 역, *죽음에의 대비교육*, 문음사.
- <http://www.adec.org/about/index.htm>.
- Becker, C. (2004)*, 현대문화와 학교 안의 죽음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 연구*, 19, 23-38.
- Bongar, B. & Harmartz, M. (1991). Clinical psychology graduate education and study of suicide: Availability, resources, and importanc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1, 231-245.
- Corr, C.A. (1978). A model syllabus for death and dying courses. *Death Education*, 1, 433-457.
- Corr, C.A. (1984). Helping with death education. In H. Wass & C.A. Corr(Eds.), *Helping children cope with death: Guidelines and resources*, (2nd edition, pp. 49-73). Washington, DC: Hemisphere.
- Corr, C.A. (1992). Teaching a college course on children and death: A 13-year report. *Death Studies*, 16, 343-356.
- Cullinan, A.L. (1990). Teachers' death anxiety, ability to cope with death, and perceived ability to aid bereaved students. *Death Studies*, 14, 147-160.
- Deeken, A. (1992)*, 알폰스데켄 박사 강연집,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 Deeken, A. (1999)*. Psychology of death and dying, *호스피스논집(호스피스교육연구소지)*, 4, 57-70.
- Dickinson, G.E. & Mermann, A.C. (1996). Death education in U.S. medical schools, 1975-1995. *Academic Medicine*, 71, 1348-1349.
- Dickinson, G.E., Sumner, E.D., & Frederick, L.M. (1992)*. Death education in selected health professions. *Death Studies*, 16, 281-298.
- Downe, W & Tamlyn, D. (1997). An international survey of death education trends in faculties of nursing and medicine. *Death Studies*, 21, 177-188.
- Doyle, D. (1991). Palliative car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United Kingdom: A review. *Death Studies*, 15, 95-103.
- Durlak, J.A. (1994)*. Changing death attitudes through death education, In R.A. Neimeyer (Eds.), *Death anxiety handbook*.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Farrel, B., Virani, R., & Grant, M. (1999). Analysis of end-of-life content in nursing texts. *Oncology Nursing Forum*, 26(5), 869-876.
- Feifel, H. (1977). Death and dying in modern America, *Death Education*, 1, 5-14.
- Gould, J. B. (1994).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strategy for grief education. *Death Studies*, 18, 65-74.
- Grollman, E. A. (1990)*, *Talking about Death*, Beacon Press Boston.
- Kim, J.Y. (2002)*. A multi-cultural study of Canadian education system : Special reference to the program of death education. *Kore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8, 113-133.
- King, J. & Hayslip, B. (2001). The media's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views of death. *Omega*, 44, 37-56.
- Kirchberg, T. M., Neimeyer, R. A., & James, R. (1998). Beginning counselors' death concerns and empathic responses to client situation involving death and grief. *Death Studies*, 22, 99-120.
- Kirchberg, T.M. & Neimeyer, R.A. (1991). Reactions of beginning counselors to situations involving death and dying. *Death Studies*, 15, 603-610.
- Knott, J.E. (1979)*. Death education for all. In H. Wass(Eds.), *Dying: Facing the facts*(2nd ed., pp. 385-403). Washington, DC: Hemisphere.
- Lagorio, J. (1993)*, *Life Cycle: Classroom Activities for helping Children Live with Change and Loss*. Tucson, AZ: Zephyr.
- Lester, David. (1991)*, The Lester Attitude toward Death Scal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23(9), 67-75.
- Leviton, D. (1977)*. The scope of death education, *Death Education*, 1, 41-56.
- Morgan, J.D. (1988)*. Living our dying: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H. Wass, F.M. Berado, & R.A. Neimeyer(Eds.), *Dying: Facing the facts*. Washington, DC: Hemisphere.
- Neimeyer, R.A. (1998). Death anxiety research: The state of the art. *Omega*, 36, 97-120.

- Pine, V.R. (1977). A socio-historical portrait of death education. *Death Education*, 1, 75-84.
- Rabow, M.W., Middleton, W., Martinek, N., & Misso, V. (1993). Counseling and therapy of the bereaved. In M.S. Stroebe, W. Stroebe, & R.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427-45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bins, R.A. (1994). Bugen's Coping with Death Scale and Death self-efficacy. In R.A. Neimeyer(Eds.),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149-165).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Rosenthal, N.R. (1981). Attitudes toward death education and grief counsel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0, 203-210.
- Schaeffeld, D. & Kappleman, M. (1992)*, Teaching Elementary Schoolers About Death : The toughest lesson. *The Education Digest*, 58, 16-20.
- Schonfeld, D. J. & Kappleman, M. (1990), The Impact of school Based Education on the Young Child's Understanding of Death. *Developmental and Behavior Pediatrics*. 11. 247-252.
- Smith, T. L. & Walz, B. J. (1995). Death education in paramedic programs: A nationwide assessment. *Death Studies*, 19, 257-267.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Valerie, C. (1998)*. Death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3).
- Warren, W. G. (1989). *Death education and research-Critical perspectives*. New-York: The Haworth Press.
- Wass, H. & Neimeyer, R.A. (1995)*. *Dying: Facing the facts(3rd ed.)*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Wass, H. (2003)*. Children and media violence. In R. Kastenbaum(Eds.), *MacMillan encyclopedia of death and dying(vol. 1, pp.133-138)*. New York : MacMillan.
- Wass, H., Miller, M.D., & Thorton, G. (1990). Death education and grief/suicide intervention in the public schools. *Death Studies*, 14, 253-268.
- Wenckstern, S. & Leenaars, A.A. (1993). Trauma and suicide in our schools. *Death Studies*, 17, 151-171.
- Wolfe, R.H. (2003). Grief counseling and therapy. In R. Kastenbaum(Eds.), *MacMillan encyclopedia of death and dying(1, 389-393)*. New York : MacMillan.
- Wong, T.P., Reker, G.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A. Neimeyer(Eds.),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Worden, J.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New York : Springer.

* 논문접수 2006년 3월 31일 / 1차 심사 2006년 5월 23일 / 2차 심사 2006년 7월 10일

* 이윤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주변 사람의 죽음이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등이 있다.

* e-mail: yilee@cu.ac.kr

* 조계화: St. Paul College, Manila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Univ. of the Philippines에서 간호학 석사학위와 가톨릭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말기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고통경험 척도개발”,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 “간호학생이 예술작품을 통해 본 죽음의 의미분석” 등이 있다.

* e-mail: jokw@cu.ac.kr

* 이현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사회사업석사학위를, 조지아대학에서 사회사업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휴먼서비스 학문 분야의 죽음교육에 관한 교과내용 분석과 욕구조사”, “죽음교육을 위한 교과내용 평가 도구 개발”, “장애아동 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 e-mail: hjlee@cu.ac.kr

Abstract

An Exploration of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Lee, Yoon Joo* · Jo, Ge-Hwa · Lee, Hy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ploration and identification of elements for death education. For this goal,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s of death education were reviewed, and contents of death education from previous studies and 128 high touch major student's reports were coded. Axes found out of previous studies and students' reports were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practice', each axis was consist of 2 to 3 categories, 4 to 8 contents.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was these established on comprehensive education contents, the core of model was 'behavior/practi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program and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agraphs.

Key words: death education, death education model, high-touch major

* Corresponding Autho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